

삼성 “함께가요 희망으로”

사회복지사해외연수,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에 투자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나눔경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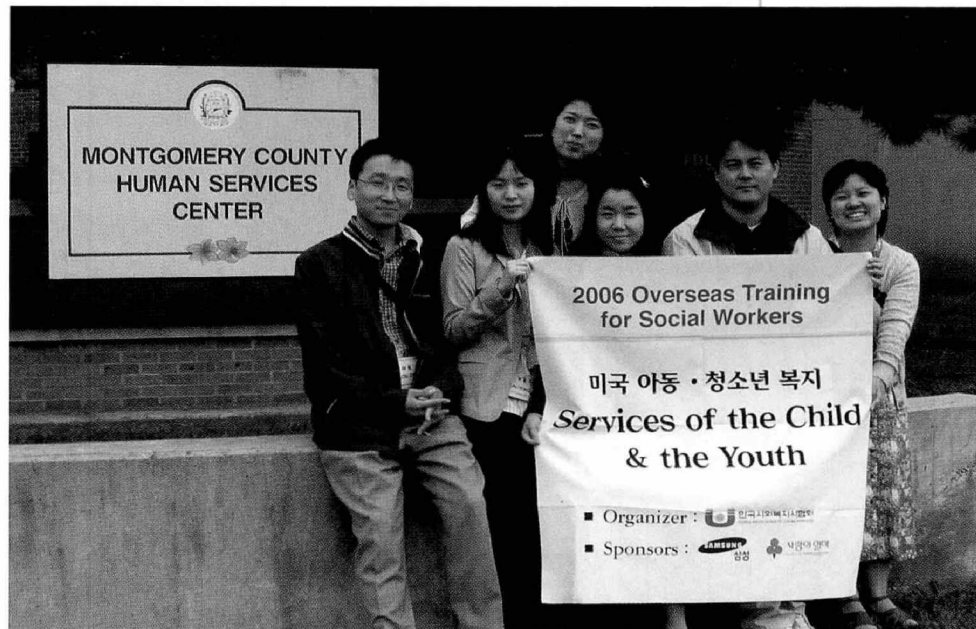
삼성은 모든 이에게 희망을 주고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나눔경영’을 선언하고 여러 가지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1994년 우리나라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전담 사회공헌담당부서를 설치하여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부각시켰으며, 더욱 증대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전문화, 복합화, 전략화의 모토 아래 임직원 자원봉사활동을 확대, 강화하여 지역사회내에서 더욱 더 많은 우리 이웃과 함께 하고자 한다

이렇듯 삼성은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이웃과 함께 하는 기업의 책임을 실천하고, 모두가 희망을 갖고 살기 좋은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5년째 지원 사회복지사 전문성 향상에 중요한 의의 가져

삼성은 총 임직원의 95%가 참여 및 300만 시간 봉사활동 실시라는 외향적인 발전 뿐만이 아니라 업무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봉사활동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대표공헌사업을 선정하여 각 방면에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연말



이웃돕기 성금으로 공동모금회와 함께 하는 지정기탁 사업을 통해 각계 각층의 사회복지기관과 함께 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회복지기관과 파트너십을 맺고 함께 수행하는 많은 연계 프로그램 중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5년째 지속되고 있는 사회복지사 해외연수는,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우수프로그램으로 자리잡은 사회복지계의 대표적 사업으로 손꼽힌다.

우리나라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여 클라이언트들의 요구와 그 해결방안이 단편적인 사고를 가지고 풀어나가기가 더욱 힘들어지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해 볼 때, 해외연수를 통한 선진국의 벤치마킹 및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한 자료 수집 등 국내에서 풀 수 없는 사회복지사들의 욕구 증대는 공감되었으나 IMF 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아

직 활성화 되지 못한 해외 연구에 대한 사회적 시각 등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그러나 삼성은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서는 해외 벤치마킹을 통한 일반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적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2001년부터 사회복지사들이 선진사회복지문화를 경험하고 국제적 안목을 키울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해외연수사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5년 동안 약 450여명의 사회복지사가 미국, 유럽, 호주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연수를 다녀왔으며 이를 통해 터득한 지식 및 기술을 통하여 자신이 소속된 기관으로 돌아가 현장에 응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축적되어 우리의 현실에도 적용될 수 있는 유효한 방안이 많이 마련되는 등 해외연수사업의 효과가 현재 점차 가시화 되어 가고 있다.

사회복지사 자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많지 않은 현실에서 사회복지사만을 위한 새로운 투자인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사업은 사회복지계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연수사례로 사회복지계 내에서 벤치마킹 되고 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전문가로서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음은 물론 업무에 지친 사회복지사들의 재충전의 기회가 되었다. 또 사회복지사 스스로 자기개발의 기회로 삼아 클라이언트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선진복지국 연수를 통해 선진 사회복지에 대한 통찰력을 강화하고 연수 후 국내에서 이것을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하였다. 그리고 매해 연수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제작·보급하여 연수 효과를 배로 높였다.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삼성사회봉사단 황정은 부장은 “사회복지사 해외연수 사업은 우리나라 곳곳에서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회복지사들만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일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둘 수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해외에 나가 많은 것을 보고 배워서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으로서 사회공헌활동 확대

삼성은 해마다 4대 이벤트를 중심으로 국내외적으로 희망과 나눔의 정신을 전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2월의 헌혈 이벤트, 10월 삼성자원봉사대축제, 12월 연말이웃사랑캠페인과 각 사의 창립기념일에 맞추어 실시되는 창립기념대축제 등 임직원들의 봉사활동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해외 지사와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지 사정을 감안하여 가장 알맞고 시급한 문제에 대한 지원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다. 중국본사와 일본삼성은 각각 봉사단을 조직하여 지역밀착형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는 물론 미국,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사회공헌활동 우수 외국기업으로 선정되고 있다.

삼성은 국내 사회공헌활동과 함께 글로벌 사회공헌활동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모든 이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다. ■